

전북 7월 물가 2.0% 상승세 이어가

전기료 내려도 장바구니 부담 여전... 농축수산물·외식비 등 생활 밀접 항목 높아

전북지역 소비자물가가 지난달에도 오름세를 이어갔다. 전기요금 인하로 전체 상승률은 둔화했지만, 농축수산물과 외식비, 보험료 등 생활과 밀접한 항목의 가격이 뛰면서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7월 전북특별자치도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의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는 116.43으로, 전월보다 0.1% 전년 같은 달보다 2.0% 상승했다. 올해 6월(2.2%)과 비교하면 다소 둔화했지만 여전히 2%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상품과 서비스 모두 상승했다. 상품은 전년 같은 달보다 1.9% 올랐는데, 농축수산물(2.8%), 공업제품(1.5%)이 오름세를 보였다.



다만 전기·가스·수도는 전월 대비 6.0% 하락하면서 전체 물가 상승을 일부 상쇄했다. 정부가 지난달 단행한 전기요금 인하 조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서비스 물가는 전년 대비 2.2% 상승했다. 집세는 0.9% 오르는 데 그쳤지만 개인서비스가 3.0% 올라 상품들을 끌어올렸다. 특히 외식비와 커피값, 각종 보험료가 줄줄이 인상되면서 서민 가계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 외식업체는 원재료비와 인건비 상승을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생활물가지수는 119.10으로, 전년 동월보다 2.2% 올랐다. 식품이 3.6% 오르면서 장바구니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신선식품지수는 124.14로 전년보다 0.6% 오르는 데 그쳤지만, 전월 대비로는 1.9% 올라 체감 물가 부담은 여전하다. 품목별로는 신선야채류 가격이 7.5%나 급등했으며, 신선채소(-0.9%)와 신선과실(-2.1%)은 소폭 하락했다. 기상 여건 개선으로 채소·과일 생산량이 늘어난 반면 어획량 부족이 어류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지출 목적별로는 교통(-0.5%)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가격이 올랐다. 기타상품·서비스(4.6%), 식품·비주류음료(4.0%), 음식·숙박(3.1%)이 두드러졌다. 반대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 안정으로 교통 분야는 소폭 하락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하로 전체 상승률은 다소 완화됐지만, 농축수산물과 개인서비스 가격 상승이 뚜렷해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특히 외식비와 보험료 인상은 가계 부담으로 직결되는 항목인 만큼 체감도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곳 전문가들은 하반기 물가 전망과 관련해 농축수산물 가격 변동성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농산물은 기후와 수급 상황에 따라 가격이 크게 출렁인다"며 "태풍·집중호우 같은 기상 악재가 겹치면 물가 불안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오상근 기자

지역기업 맞춤형 지원... 가시적 성과 창출

전북테크노파크 애로해소센터, 실질 성과 이어져

(재)전북테크노파크 애로해소센터는 분야별 8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도내 기업의 현장 애로를 신속히 파악하고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함으로써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기술 및 사업 애로 해소와 전략 컨설팅을 통해 대외 신뢰도 제고, 투자 유치, 수출 확대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며,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애로해소센터는 전북테크노파크 내 중소기업 애로 대응 전담 조직으로, 기술 R&D, 특허, 노무, 마케팅, 수출 등 경영 전반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한다. 전문위원들이 현장을 직접 찾아 맞춤형 컨설팅과 후속 프로그램을 연계함으로써, 전북IT의 체계적 종합 지원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2025년 상반기에는 현장 상담을 통해 31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이끌었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지원사업 선정, 해외 진출 컨설팅 등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강성수 전문위원은 군산시 소재 명일직업해양(주)의 성장 로드맵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했다. "군산형 강소기업" 지정과 더불어, 새만금개발청·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로부터 총 310억 원 규모의 투자지원 확약을 도출해냈다. 이

시에는 지역 해양산업 생태계와 첨단 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모범적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용진 전문위원은 전주시의 (주)메디앤비서치에 수출 확대 및 해외 지사 확장을 위한 전략 컨설팅을 제공했다. 해외 온라인 마케팅 전략 수립, 마케팅 전문 인력 확보, 글로벌 인증(CPNP, FDA, HALAL) 취득, 신제품 개발을 통해 해외 오프라인 매장 진출과 총관 계약 등 실질적인 수출처 확보 성과를 이뤘다. 전북특별자치도 내 기업은 기술, R&D, 특허, 노무, 마케팅, 수출 등 다양한 경영 애로에 대해 애로해소센터를 통해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담 신청 및 문의는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또는 전화(063-219-2135~6)를 통해 가능하다. 애로해소센터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해결책을 바탕으로 기업의 숙원 과제를 해소하며, 전북 기업 생태계 활성화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전북테크노파크 이종환 기업지원 단장은 "기업이 성장 과정에서 겪는 크고 작은 어려움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현실적인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북은행, 본점 '화재대피 다수 사상자 처리훈련' 실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화재 시 대처능력 숙달을 위한 본점 화재대피 및 다수 사상자 처리훈련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2025을지연습 일환으로 지난 20일 본점에서 시행한 이번 화재대피 훈련은 전북은행 임직원 및 직장민방위대, 임주사가 참여했다. 화재발생 전과 및 신고, 비상계단을 이용한 신속한 대피 등 화재 발생 시 고객 및 임직원의 신속한 대피와 화재진화 및 긴급복구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을 실시하였다. 또한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직장민방위대원을 활용한 자체 의료구조 및 구호대를 편성하여 신속한 환자 이송 훈련까지 실시하였다. 박성훈 부행장은 "화재대피 훈련을 '설마'하는 생각보다 실제상황에 직면한 것처럼 가급적 많은 인원이 동참해 실천처럼 행동으로 숙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행동 습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 2분기 경제, 건설은 '웃음'... 일자리·인구는 '걱정'

소비·수출 제자리걸음·청년 인구 유출 계속돼

전북의 2025년 2분기 경제가 건설 경기 호조에도 불구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 고용, 인구 부분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전북본부 발표에 따르면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건설 수주는 큰 폭으로 늘었지만 소비와 수출은 제자리걸음을 했고, 청년층 인구 유출도 계속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2분기 전북의 광공업 생산지수는 107.0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줄었다. 1차 금속(19.4%)과 기타 운송장비(156.0%) 생산이 늘었지만, 지역 주력 업종인 화학제품(-7.8%)과 음료(-16.3%)가 크게 감소한 영향이 컸다. 서비스업도 시장은 비슷하다. 생산지수가 113.2로 1.2% 줄었는데, 부동산(-20.2%)과 사업지원서비스(-9.3%)가 눈에 띄게 줄었다. 다만 보건·사회복지(1.5%), 운수·창고(3.6%) 등은 소폭 늘며 버팀목 역할을 했다. 도민들의 지갑 사정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소매판매액지수는 100.4로 지난해보다 0.1% 오르는 데 그쳤다. 자동차와 연료 판매는 4.2% 늘었지만, 대형마트(-5.0%)와 전문소매점(-1.2%)은 줄었다. 수출도 17억 달러로 0.4% 감소했다. 화학 관련 품목은 늘었지만, 일반기계(-24.2%), 차량부품(-25.2%)이 크게 줄

면서 전체 수출이 주춤했다. 수입은 13.9억 달러로 0.8% 줄었다. 한편 건설 경기는 활기를 띠었다. 2분기 건설수주액은 9,544억 원으로 무려 70.9% 늘었다. 특히 도로, 교량 등 토목 부문이 376.8% 급증했고, 공공발주도 82.3% 증가했다. 덕분에 건설업계는 오랜만에 웃음을 지었다는 평가다. 물가는 소비자물가지수가 116.4로 2.1%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2.4% 올라 체감 부담이 여전하다. 특히 식료품과 외식 물가가 각각 3.8%, 3.6% 올랐다. 교통비만 0.5% 줄었다. 일자리 시장은 나빠졌다. 취업자 수는 98만7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7천 명 줄었고, 고용률은 63.8%로 떨어졌다. /오상근 기자



농협사료 군산바이오 전직원, 안전체험교육 실시

농협사료 군산바이오(장장 정민석)는 전직원대상으로 이달 7일, 20일 2회에 걸쳐 안전보건공단 익산 안전체험교육장에서 사업장 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안전모 충격 체험, 추락사고 체험, 지게차사고 체험, 파전류 체험 등 실제 제조업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직원들은 체험을 통해 위험 상황에 대한 경각심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높아진 안전관리 책임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군산바이오 정민석 장장은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직원들의 지속적 교육을 통해 안전의식 고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은장학문화재단, '말과 함께 뛰는 하루 2025 JB 어린이 스포츠 클럽' 실시

지역아동센터 아동 100명 대상, 승마·농촌체험 건강한 성장 지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은 지난 6일부터 19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완주 황진오 승마클럽에서 도내 지역아동센터 아동 100여명을 대상으로 '말과 함께 뛰는 하루 2025 JB어린이 스포츠 클럽'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말과의 교감 기회를 제공하고, 자연 속에서 다양한 체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가 아동들은 말 먹이주기, 승마 체험, 농촌 체험 등 다채로운 활동에 참여하며 생명의 소중함과 책임감을 배우는 동시에 균형감각, 자신감,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아동들은 "처음에는 말이 커서 무서웠는데 직접 먹이

를 주고 타보니 말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고 재미있었다", "농촌 체험을 통해 자연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관계자는 "아이들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경험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체육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를 주고 타보니 말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고 재미있었다", "농촌 체험을 통해 자연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관계자는 "아이들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경험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체육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